韓-美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영어 원문)

Joint Statement

May 7, 2013

Acting Secretary of Energy Daniel B. Poneman and Mr. Yoon Sang-jick,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of the Republic of Korea, met on May 7, 2013, at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where they exchanged views on cooperation on a wide range of energy priorities.

They noted the importance of clean energy technologies for energy security,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growth while mitigating the effect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current cooperation under the Implementing Arrangem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operation in the Area of Clea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signed October 11, 2011. They noted the decision by DOE and MOTIE in December 2012 to launch joint projects in smart grid and fuel cell vehicle technologies, and looked forward to exploring additional mutually beneficial collaborations in technology areas such as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smart grid, energy storage, green transportation, and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welcomed the extension of the Statement of Intent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xchange of Information on Gas Hydrate Research and Development, signed April 18, 2008.

Noting the important role that shale gas can play in promoting energy security and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shared the view that DOE and MOTIE should consider ways to share information on topics of mutual interest related to shale gas. To that end, DOE in conjunction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and MOTIE are to explore opportunities for bringing together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experts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experience.

Acting Secretary Poneman and Minister Yoon noted the successful proceedings of the Fourth Clean Energy Ministerial, held in India on April 17-18, 2013, and welcomed Korea's leadership in hosting CEM5 in 2014. Noting the important role of the Clean Energy Ministerial, Minister Yoon committed to making CEM5 a great success, and both stated that they looked forward to collaborating with other major economies on substantive work through the CEM in the year ahead.

韓-美 에너지협력 공동성명(한글 번역)

공동 성명서
2013년 5월 7일

윤상직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다니엘 폰먼 미국 에너지부 장관대행은 2013년 5월 7일 워싱턴 D.C.의 에너지부 본부에서 만남을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 주요 과제에서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장관은 에너지 안보, 경제적 경쟁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영향 완화에 있어서 클린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윤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지난 2011년 10월 11일에 체결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클린에너지 연구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이행 약정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협력 상황에 만족을 표했다. 두 장관은 지난 2012년 12월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스마트그리드와 연료전지차 기술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 청정 교통,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의 기술 분야에서도 호혜적 협력 기회를 추가로 발굴하기를 기대하였다.

윤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지난 2008년 4월 18일에 체결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개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의향서의 연장을 환영하였다.

에너지 안보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에서 셰일가스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며, 윤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산업부와 에너지부가 셰일가스와 관련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美 에너지부는 美 상무부 및 韓 산업부와 함께 양국의 정부 및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할 것이다.

윤상직 장관과 다니엘 폰먼 장관대행은 2013년 4월 17~18일 인도에서 개최된 제4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CEM)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목하였고, 2014년 제5차 CEM 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CEM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며 윤상직 장관은 5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두 장관은 앞으로 1년 동안 CEM을 통해 다른 주요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